

# 광주·부산 조각 한자리서 만난다



정기웅 작 '엄마의 향기'



김현호 작 '현대인-공존'

## 무등갤러리 19~30일 '광주·부산 34인의 조각전'

약 250km 떨어진 광주와 부산은 먼 거리만큼이나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영호남 대표 도시다. 곡창지대를 끼고 발달한 광주,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한 부산답게 문화·예술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부산은 조각 분야가 많이 활성화됐다. 지난해 무용, 패션쇼가 어우러진 등 독특한 기획 초대전을 열었던 무등갤러리가 올해는 부산과 광주 조각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19일부터 30일까지 '광주·부산 34인의 조각전-조각가 그들이 만나대!'전을 연다. 24~28일 열리는 '광주 국제아트페어', 9월 개막하는 '광주 비엔날레'와 더불어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부산 조각가 18명, 광주 16명이 참여해 조각 34점을 선보인다. 모두 능약은 작품세계를 보이는 40대 중반 이상 작가들이다. 다작을 전시하는 만큼 벽, 바닥을 활용해 전시장이 오밀조밀 꾸며질 예정이다.

부산 강이수 작가는 철과 돌을 재료로 동물을 형상화한 '원시의 message' 작품을 출품한다. 철이 현대 기계문명이라면 돌은 원시시대 느낌이다. 정면을 향해 동그랗게 뚫린 눈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광주 나명규 작가도 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전시한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새하얀 어린 양들이 등장하는 'The arts as physical endurance'다. '예술은 곧 인내심'이라는 작가 의지가 전해진다.

한국조각가협회 부산지부장을 맡고 있



박진성 작 '긴 하루'

는 김현호(동아대 교수) 작가와 광주 정기웅 작가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 작가는 화강석을 하트 모양으로 깎은 '현대인-공존' 작품을 선보인다. 무수한 사람 형상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곁면에 새기며 소통과 공존을 표현했다. 김 작가는 '엄마의 향기'에 정겨운 가족 관계를 담

았다. 엄마를 뒤쫓아가는 두 어린아이 모습이 정겹다.

박진성 작가는 중년 남성의 노곤함을 소재로 한 '긴 하루'를, 이기원 작가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세상을 바라보다'를 출품한다.

유은석 작가는 거꾸로 매달린 스파이더맨을, 고근호 작가는 새에 탄 기타치는 사람을 담은 '기분좋은 날'을 출품하며 팝아트적 요소도 보여준다.

특색한 재료를 사용하는 작가도 있다. 철 의자작품 '우연한 팽창'을 제작한 김태인 작가는 공기를 이용해 일부러 녹이 슬게 했고 박주현 작가는 다듬이 방망이를 깎아 '역수같이 쏟아지던 날'을 만들었다. 주미희 작가가 출품한 '나비의 꿈'은 가는 색실과 철사를 사용했다.

무등갤러리는 이번 조각전 이후 9월 열리는 '추억의 7080 총장축제' 기간 '무등 아트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다. 작가 100명 이상이 참여해 최대 30만원이 넘지 않는 부담없는 가격에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다. 또 내년 특별기획전은 원로·신세대 작가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초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연선 1층)

아프리카 쇼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 '호남 한국춤 대부'...代 끊긴 '훈령무' 발굴 계승

타계한 한국무용 명인 송준영 선생

## 중학생때 입문...한량무·살풀이 대가 조선대 교수 재직 수많은 제자 길러내

지난 16일 지병으로 타계한 한국무용가 송준영(1936~2016) 선생은 '호남 지역 무용의 대부'다.

평생을 교육자로, 무용수로, 안무가로 살아온 그는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한국 춤의 맥을 이어가며 '호남 한국춤' 역사를 만들어간 인물이기도 하다.

중학교 시절, 음악교사의 권유로 춤을 추기 시작한 그는 광주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스승은 옛 전남도청 골목에서 신생문화연구소를 운영하던 이복래 선생이었다.

하지만 당시 대학에 무용과가 없는데다 부모 반대도 커 성균관대 국문학과에 입학한 그는 송병(전 국립무용단장) 무용연구소를 찾아가 신동무용(현대무용)부터 발레, 한국무용 등을 두루 섭렵한다.

대학 졸업 후 부산에 내려가 무용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막창단원 부산시립무용단 상임연륜장을 맡은 그는 1974년 조선대 무용과 교수로 부임, 교육자의 길로 들어선다.

송준영의 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훈령무'다. '살풀이', '한량무' 등 모든 춤에 능했지만 특히 훈령무가 군사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춤사위로 표현한 '훈령무'는 고인이 가장 즐겨 추고, 가장 사랑하는 레퍼토리였다.

송 선생의 '훈령무'는 '한국 전통춤의 대부' 한성준 이후 역사가 끊겼던 '훈령무'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선대 교수로 취임 후 새로운 창작 레퍼토리를 연구하던 그는 한영숙 선생으로부터 할아버지 한성준 선생이 훈령무를 추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후 한영숙의 고증을 바탕으로 춤사위를 익히고 복식연구가 정선으로부터 의상 고증을 받아 지금의 '훈령무'를 완성, 1978년 초연했다.

2001년까지 조대 무용과에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그는 '한국춤연구회'를 결성,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춤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송선생에게 춤을 배운 한국무용가 김금례씨는 "살풀이 춤을 추실 때는



송준영의 대표작 '훈령무'

굉장히 섬세하고, 훈령무를 추실 때는 남성적인 춤사위를 보였습니다"며 "전통 남도춤의 맛깔스러움과 함께 한영숙 선생의 춤의 특징은 담백함과 소박함이 어우러진 춤을 추셨다"고 회고했다.

고인은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지난 2014년까지 한국춤연구회 제자들,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을 가르치며 평생 춤과 함께 해왔다.

한국무용협회 광주시지회 및 고문 등 폭넓은 활동으로 금호문화상, 광주무용인상, 한국무용협회 무용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7시30분 광주스카이장례식장 301호, 장지는 고흥군 선영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송수권 시문학상' 본상에 광주대 이은봉 교수

### '남도시인상' 배용제·'젊은시인상' 이병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송수권 시문학상' 본상(3000만원)에 광주대 문예학과 교수인 이은봉(63·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인의 열 번째 시집 '봄바람, 은여우'(도서출판).

또 '올해의 남도시인상'에는 배용제(54) 시인의 시집 '다정'(문학과지성)이, 젊은 시인상에는 이병일(35) 시인의 '아흔아홉 개의 빛을 가진'(창비)이 선정됐다. 상금은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이 수여된다.

본상 수상자인 '봄바람, 은여우'는 '자연 대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짓고 그것을 다시 우주적 존재로 확대 해석해 상상력의 깊숙과 확장을 구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 소식을 접한 이 시인은 "8월 초부터 중국 항일 유적지를 답사 중이었는데 수상 소식을 백두산에서 문자로 받았다"며 "남도를 대표하는 선배 시인의 이름을 딴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봄바람, 은여우'는 다양한 바람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집이다. 모두 72편이 수록된 시집에는 가볍고 경쾌한 바람의 이미지와 은여우로 상징되는 야생의 활



달함이 투영돼 있다. 시인은 바람을 자연의 이미지로만 한정하지 않고 삶의 다양한 속성과 인간의 모습으로도 확장한다. 바람이 인간의 성격이자, 품격이며 그 자체로 인식되는 이유다.

이 시인은 "바람은 하단전(下丹田)에서 솟구쳐 오르는 욕망의 기표이다. 리비도의 기표다. 또한 바람은 '바라다'라는 동사의 명사다. 희망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다"면서 "바람은 미지이다. 본래 미지로부터 오는 것이 이미지이다. 이미지인 바람이라는 말로 만든 시"라고 덧붙였다.

고흥군이 주최하고, 송수권 시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송수권시문학상'은 남도의 대표 서정시인 송수권의 문학적 성과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제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내달 3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시낭송대회와 함께 개최되며 시문학상 심사위원도 공개된다. 시낭송대회 대상에게는 상장과 함께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YHB 이동식 에어컨** |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 ECO**

창사 29주년

www.yhb.co.kr

PTB7000      PTB5000      PTB-W5000(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고온 및 습기에 강력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추천**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업 특별가 공급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달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062-952-6633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제동)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